

# 경찰의 국내 자생테러 대응 방안 연구

## A Study on Countermeasures by Police to Autogenous Terror in Korea

양 철 호\*

### 차 례

I. 서 론	IV. 경찰의 국내 자생테러 대응 방안
II. 국내 자생테러 환경분석 및 발생 가능성	V. 결론
III. 조사설계 및 분석결과	

### • 국 문 요 약 •

최근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생테러는 해당 국가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나아가 인접 국가까지 확대되고 있다. 9.11테러 이후 나타나고 있는 자생테러는 자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에 의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로써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자생테러 환경을 분석하여 테러의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생테러의 주요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테러 시 가장 먼저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경찰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자생테러 환경은 자생테러 가능인구의 급격한 증가, 특히 급증하는 IS(이슬람 국가)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 가능한 인원의 증가, 사이버공간의 확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서구의 자생테러 사례를 살펴보면, 마드리드 열차테러, 런던테러, 보스턴 마라톤 테러 등이며, 이들 사례분석을 통해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및 지역사회 활동 강화, 사이버상 테러 위해요소 제거, 정보활동 강화,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태세 보완, 국내 및 국제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증진 등을 들 수 있다.

◆ 주제어 : 자생테러, 국제적 테러사례, 국내테러 대응, IS

\* 청주대학교 군사학교수

## I. 서론

미국의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테러들은 어느 특정 지역,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며, 범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IS(이슬람국가)<sup>1)</sup> 설립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사회에서는 테러 발생지역인 중동지역 출신자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였지만 영국 지하철·버스테러, 벨기에 공항테러, 프랑스 트럭테러 등 자국출신자에 의한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생테러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은 자생테러가 발생치 않는 안전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도시에 고층빌딩, 지하에 다중이용시설 등이 산재해 있고, 대·소규모 국제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

1) IS(Islamic State, 이슬람국가)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 ISIS로 일컬어지기도 함)가 2014년 6월 29일 개명한 단체로, 그해 6월부터 이라크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이후 IS는 중동은 물론 유럽에서도 테러를 자행하며 전 세계에 공포를 안겼으나, 2017년 7월과 10월에 걸쳐 각각 이라크 모술과 수도인 시리아 락카를 잃으면서 와해됐다. 이슬람 국가 (Islamic state)는 이슬람교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search.nhn?query=%EC%9D%B4%EC%8A%AC%EB%9E%8C+%EA%B5%AD%EA%B0%80&searchType=&dicType=&subject=\(2018. 9. 4. 검색\).](https://terms.naver.com/search.nhn?query=%EC%9D%B4%EC%8A%AC%EB%9E%8C+%EA%B5%AD%EA%B0%80&searchType=&dicType=&subject=(2018. 9. 4. 검색).)

지금까지의 국내 테러 환경을 살펴보면 자생테러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체류자, 북한이탈주민 등 자생테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사회활동의 원인이 되어 치안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고, 나아가 외국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같이 자생테러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의 자생테러 환경과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생테러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것이 본 논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내 자생테러 환경 분석과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에서 발생한 자생테러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국 내에서 발생 가능한 자생테러를 예상해 봄으로써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야하는지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생테러의 주체를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즉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교육 및 복지혜택을 받으며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 또는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를 자생테러라고 보았다. 그리고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목적 등을 수반하면서 비(초)국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지시를 받거나 자발적으로 이를 추종하여 자행하는 테러만을 자생테러로 한정하였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불만이나 원한, 정신이상 등에 의해 자행되는 방화나 폭력 등은 자생테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문헌분석 즉, 기존의 연구 논문, 간행물, 단행본, 언론보도 자료 등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 Ⅱ. 국내 자생테러 환경 분석 및 발생 가능성

### 1. 국내 자생테러 환경 분석

#### 1) 외국인 체류 인구의 급격한 증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입은 199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30일 법무부가 발간한 '2018년 6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291,653명에 달했다.<sup>2)</sup> 10년 전인 2006년(91만 명, 전체 인구의 1.9%)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러한 규모는 정부가 외국인 통계를 처음 만든 1960년 이래 200만 명을 크게 돌파한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절반가량은 중국인(1,045,641명, 45.6%)이고, 이어 베트남(186,731명, 8.1%), 미국(162,382명, 7.1%), 태국(182,331명, 8.0%), 우즈베키스탄(67,169명, 2.9%) 순이다. 2006년부터 10년간 외국인 입국자 수는 매년 평균 10.5%씩 증가했다.<sup>3)</sup> 외국인 체류자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도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330,005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외국인의 출입국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한류 열풍에 따른 전 세계의 단순 여행객 및 유학생 수의 증가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과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민자도 외국인 유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민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6월 기준으로 157,431명이 체류 중이다.

2) 법무부가 발표한 체류 중인 외국인 통계에 북한이탈주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출입국 이민국 통계월보,

<http://m.news.ne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832296>(2018. 8. 9. 검색).

〈표 2-1〉 국민의 배우자 체류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6. 6월	'17. 6월	'18. 6월
인원	148,489	150,865	150,994	151,608	152,374	151,820	154,072	157,431
전년대비 증감률	2.6%	1.6%	0.1%	0.2%	0.5%	-	1.4%	2.2%

※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  
 (2018. 9. 4. 검색).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도 10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 및 테러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표 2-2〉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불법 체류자	200,489	177,955	168,515	167,780	177,854	183,106	208,778	214,168	208,971	227,677	330,005

※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  
 (2018. 9. 4. 검색).

## 2) IS와 연계 가능한 인구 증가

서구에서 발생한 자생테러 시기를 보면,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이슬람극단주의, 원리주의 세력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연관된 종교인 이슬람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

세로써 기독교, 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로 분류되는 종교이다.

국내 이슬람 사원은 1976년에 설립된 이태원의 이슬람 중앙 사원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세워져 있다. 한국 이슬람교 주간 무슬림 1391호(2018년 6월 29일)에 의하면, 국내에는 2018년 6월 현재 15개의 사원이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세워져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이슬람 센터와 코엑스 무역센터에 설치된 무슬림 전용 기도처소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기도처소가 있다.

한국에서 처음 이슬람을 접하게 된 것은 6·25전쟁 당시 한국을 돕기 위해 파병된 16개 국가 중 하나인 터키군을 통해서였다. 이후 1970년대에는 중동지역에 건설을 위해 나갔던 근로자들을 통해 확산이 되었고, 특히 1990년부터는 노동인력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의 국내문제로 이슬람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국내 이슬람 인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외국인 무슬림과 한국인 무슬림을 포함하여 약 2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350만 명의 외국인이 존재한다면 그 가운데 약 20%인 70만 명은 무슬림일 것이라 예상된다고 한다.<sup>4)</sup>

한 국가에서 무슬림 인구 비율이나 규모가 자생테러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히 식별되지 않고 있으나, 한 국가내의 무슬림 인구의 존재가 최근 국제사회의 자생테러 발생 사례를 볼 때 자생테러의 토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sup>5)</sup>

---

4) 기독교 타임즈 모바일, “급증하는 국내 이슬람 사원과 무슬림,” <https://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56>(2018. 9. 4. 검색).

5) 박철현, “국내 자생테러 발생가능성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및 대책,”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0, 143쪽.

특히, 최근 테러 중 스페인 마드리드, 영국 런던, 미국의 보스턴 테러 이외에도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범들은 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세력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무슬림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무슬림들이 모두 테러와 관련된 범죄자 취급되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무슬림들이 편견과 냉대 속에 생활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발생하는 테러로 인해 무슬림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과 편견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말 국정원에서는 이슬람 국가에 가담한 적이 있던 외국인 근로자 7명을 적발한 이후 최근까지 약 50여명의 외국인 및 내국인을 테러위협 혐의로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2013년에는 한국 출신 민간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22세에 시민권을 취득한 후 이슬람교로 개종 하였다. 아랍계 친구들과 지하드에 참여하기 위해 파키스탄으로 건너가 테러훈련을 받고 미국으로 다시 복귀하여 테러 집단을 구성하고 총기 사용과 폭탄제조법을 익히며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sup>6)</sup> 이 민간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1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 사례를 통해서 한국인도 자생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sup>7)</sup>

우리나라는 미국의 군사 동맹국으로서 중동지역을 포함해서 세계 각지에 군사력을 파병하고 있다. IS는 2015년 9월 다비크(Dabiq)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군 합류국을 ‘십자군 동맹국’으로 호칭하고 한국도 포함시켰다.<sup>8)</sup>

6) 앞의 글, 135-139쪽.

7) 위의 글, 135쪽.

8)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9589&kind=1> (2018. 9. 4. 검색).

### 3) 사이버 공간의 확대

최근 사이버 공간은 첨단 기술의 발달 및 도입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이버 상에서는 스마트 인터넷 시대로 스마트 미디어 기술이 활용되는 스마트 소사이어티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있다. 이러한 스마트미디어 시대에서 발생하는 전 세계 테러는 디지털 지하드나 자생테러 네트워크와 같이 활동영역과 성장단계가 전통적인 테러조직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아닌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하다. 최근 등장한 IS는 다른 테러집단과 차별되는 주요 특징으로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프로파간다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시리아와 이라크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sup>9)</sup> 이러한 인력 확보이외에도 웹 공간상에서 폭발물 제조, 총기 및 기타 무기 활용 방법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테러 공격 방법을 제시하면서 교육과 훈련의 방법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을 통해 폭발물 제조과정을 담은 동영상 뿐만 아니라 폭발물 원료 구입과정에 대한 정보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테러조직에 의해 구축된 네트워크에 의해 국내의 자생테러리스트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2005년 1월에 터키를 통해 IS에 가입 후 활동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 군의 경우에도 IS의 사이버 상 프로파간다에 동조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9) 신용욱, “한국형 자생적 테러에 대한 전문가 인식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78쪽.

## 2. 한국 내 자생테러 발생 가능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많은 사회적인 변화도 겪고 있다. 앞서 살펴본 서구에서 발생한 주요 사례와 우리나라의 자생테러 발생 가능한 환경을 분석해보면, 객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국가보다는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발생 가능 확률을 정확히 수치화 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발생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테러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정부부처 공무원, 연구자, 교수 등 91명을 대상으로 국내 자생테러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표 2-3>과 같이 한국에서 자생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는 55%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응답자 모두 자생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sup>10)</sup>

<표 2-3> 자생적 테러 발생 가능성 인식

단위 : 명(%)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국은 자생적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4 (4.4)	18 (19.8)	36 (39.6)	23 (25.3)	10 (11.0)
해외의 자생적 테러 발생 뉴스를 보며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6 (6.6)	16 (17.6)	17 (18.7)	41 (45.1)	11 (12.1)
자신의 주변에도 언제든지 자생적 테러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7 (7.7)	15 (16.5)	26 (28.6)	37 (40.7)	6 (6.6)
한국의 자생적 테러 발생가능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9 (9.9)	41 (45.1)	30 (33.0)	10 (11.0)	1 (1.1)
한국은 자생적 테러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14 (15.4)	39 (42.9)	35 (38.5)	3 (3.3)	0 (0.0)

※ 출처: 신용욱, 앞의 논문, 76-86쪽.

10) 신용욱, 위의 글, 76-86쪽.

또한, 테러 대응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정부부처 담당자와 경찰 관계자, 연구자 등 2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생테러가 발생할 경우 그 주체와 대상이 누구이며 어떠한 유형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 또는 동남아나 중국, 이슬람권 등의 이주민과 그들의 1.5세, 2세대들 그리고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국민이 될 것으로 보았다.<sup>11)</sup> 또한, 자생테러 발생 가능한 유형은 인터넷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만들어진 사제폭탄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sup>12)</sup>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자생테러 발생가능성을 판단한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테러 환경 분석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2013년 한국 출신 미국 이민자가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검거되어 11년 6개월의 형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한국인도 자생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9월에는 IS가 온라인 영문용 선전 잡지 다비크(Dabiq)에서 미국 주도의 십자군 동맹국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2016년 국정원에서는 이슬람 국가에 가담한 적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테러 위협 혐의로 조사한 바도 있다.

이처럼 한국도 자생테러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유럽국가와 달리 남북한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다. 따라서 테러 가능 분자가 국제테러 단체와 연계될 경우 한국도 자생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특히 자생적으로 급진화 하는 테러범들은 사전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자생테러 대응의 한계이다.

11) 신용욱, 앞의 글, 74-100쪽.

12) 신용욱, 위의 글, 102-103쪽.

### Ⅲ. 자생테러 주요 사례 및 시사점

#### 1. 자생테러 주요 사례

자생테러는 9.11테러 이후 발생한 영국에서 개종한 영국인에 의해 기도된 2001년 12월 American Airline 비행기 폭파미수 사건을 시작으로 유럽 및 미국, 호주 등 서구 각국에서 <표 3-1> 처럼 다수 발생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인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노르웨이 총기난사 테러, 미국 마라톤 테러를 분석하였다.

<표 3-1> 미국 9.11테러 이후 주요 자생테러사건

단위 : 명

국명	주요 자생테러 사건	범인
미국	2002년 버팔로에서 6명의 테러집단 검거	미국 태생의 예멘계 시민권자
	2003년 북버지니아에서 테러집단을 결성하고 총과 폭탄 제조법 등을 수집하다가 검거	아랍계 미국인 11명(한국계 권용기 포함)
	2005년 LA공항의 이스라엘 항공사 창구에 대한 테러미수	4명 중 3명이 미국태생의 개종자
	2006년 시카고의 시어스 타워 공격미수	7명 중 5명이 미국인
	2007년 뉴저지의 미군부대 포트덱스 공격미수	요르단 터키 알바니아 출신 이민자
	2009년 미국육군기지 포트후드에서 군의관으로 일하던 육군소령이 동료들을 총으로 쏘아 13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	팔레스타인계 이민 2세
영국	2001년 12월 American Airline 비행기 폭파미수 사건	개종한 영국인
	2004년 질산암모늄 비료폭발물 600kg을 이용하여 테러를 모의하다가 적발됨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영국인, 파키스탄계 영국인들, 알제리계 영국인
	2005년 2건의 자살폭탄테러로 50명 사망, 700명 부상	파키스탄계, 자메이카계, 동아프리카계 영국인

국명	주요 자생테러 사건	범 인
	2006년 적어도 10대의 대서양항단 비행기에 대한 액체 폭탄 테러	영국태생의 영국인들(그 중 적어도 3명은 개종함)
	2007년 글래스고우 국제공항의 차량폭탄 테러	4명의 영국인 의사들
	2008년 엑스터(Exeter)의 한 음식점에서의 폭발물 테러	22세의 개종한 영국인
덴마크	2005년 마호메트를 비하하는 만화를 게재한 신문사와 만화가에 대한 테러미수, 2007년 테러미수	요르단계 이민 2세, 덴마크 출생
	2007년 코펜하겐 폭탄테러 미수	8명 중 6명이 외국 태생의 덴마크 국적자
네덜란드	2004년 회교권 남성들을 여성을 고문하는 사람으로 묘사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영화감독 테오 반 고흐가 출근길에 참수 당함	모르코계 이민 2세, 암스테르담 출생
스페인	2004년 마드리드 통근열차 폭탄테러로 192명 사망, 2,000여명이 부상	테러범 중 1/3이 스페인 시민권자
독일	2007년 1,500파운드의 과산화수소(런던 폭탄 테러에 사용된 물질)를 운반하다가 체포됨.	2명의 개종 독일인과 1명의 터키인
이탈리아	2004년 밀라노 지하철에 대한 폭탄테러 미수	이슬람 성직자를 포함한 테러집단
벨기에	2007년 구금된 알카에다 요원을 구출하려다 검거	14명의 벨기에인
	2008년 테러집단에 가입한 사람들 검거	6명의 벨기에 시민권자
스위스	제네바공항에서 이스라엘 민항기에 대한 로켓 추진수류탄(RPG) 공격미수	북아프리카계 이민자 7명
호주	2005년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2002년과 2005년의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테러를 저질러 220명 이상이 중 92명이 호주인을 죽인 테러범 검거, 2009년 6명 구금	레바논계 호주인 2세

※ 출처: 박철현, 앞의 글, 135-136쪽 부분 발췌.

### 1)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

2004년 3월 11일 06:33분에 첫 폭발을 시작으로 일일 평균 65만명이 이용하는 스페인 마드리드 남부 아토차역의 4개의 교외선 통근열차

에서 10개의 폭탄이 연쇄적으로 폭발하여 202명이 사망하고, 2,000여 명이 부상당하는 테러가 발생하였다. 4월 3일, 스페인 경찰은 마드리드 남쪽의 한 아파트에서 스페인인 2명, 시리아인 3명, 모로코계 스페인인 11명, 인도인 2명 등 테러 용의자들을 체포하였다. 그 후에도 스페인은 테러 혐의자 76명을 체포하여 이 중에서 25명을 테러범으로 구속하였다. 테러범들은 대부분 모로코계 스페인 이민 2세이거나 모로코인 이었다.<sup>13)</sup> 스페인 정부는 이들 중 28명을 재판에 회부하였으며, 법원은 2007년 11월에 테러사건의 주범인 모로코인 자말 주잠과 오스만 엘냐우이, 스페인 호세 네밀리오 수아레스 타소라스에 대해 각각 살인과 기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만 4,000~4만 3,000년을 선고했다.<sup>14)</sup>

마드리드 테러의 특징은 첫째, 초국가적 연계조직에 의해 첨단통신장비를 이용한 테러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스페인은 사고현장에서 발견한 폭탄에 정착된 휴대폰과 마드리드 북동부 25km 지점에서 발견된 도난 차량에서 7개의 뇌관과 아랍어로 된 코란의 녹음테이프가 발견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첨단 장비가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셋째, 테러에 가담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5)</sup>

13) 홍순남, “3·11마드리드 테러와 7·7런던테러 비교분석,” 경찰청, 대테러 논총, 제3집, 2000, 146쪽.

14) 동아닷컴,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 3명 징역 4만년에 처한다. : <http://news.dinga.com/3/all/20071101/8506936/1> (2017. 8. 9. 검색).

15) 임헌준, “한국 철도의 테러 정책 발전 방향,”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9쪽.

## 2)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2005년 7월 7일 오전 8시 49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런던 금융 중심가의 지하철에서 연쇄 폭탄 폭발사건이 발생하여 56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당하는 테러가 발생하였다. 이는 런던올림픽 개최 소식 및 스코틀랜드의 G8정상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테러범 4명은 폭탄배낭을 메고 킹스 크로스역에 집결한 후 공격 목표물을 향해 개별적으로 분산하여 테러를 실시했다. 런던 경찰은 실종자와 테러에 관련된 신고전화 12만여 통 중에서 이층 버스 폭파범의 어머니가 아들의 실종신고를 하면서 단서를 찾았다. 이를 근거로 테러범의 은신처를 급습하였다. 영국 경찰은 테러현장에서 테러범의 소지품, 문서들을 발견하여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목격자들의 증언과 지하철 CCTV 화면 5,000개를 분석하여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사건 발생 7일 후에 테러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이들은 유기 과산화수소로 자체 제작한 폭발물을 등에 지고 있었다. 폭파범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영국정부 지지를 반대하고 이라크 전쟁에 개입한 영국정부에 대항하는 오사마 빈 라덴을 추종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이었고, 런던 시내 곳곳의 CCTV에 모습들이 녹화되었다. 이들은 폭탄이 든 백을 메고 열차에 탑승했고, 한 명은 버스에 탑승했다. 이러한 테러는 유럽에서 발생한 최초의 자살테러이며,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런던에서 발생한 가장 큰 폭발이었다.<sup>16)</sup>

16) 신승균, “한국의 철도테러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1호, 2002.

### 3) 노르웨이 총기난사 테러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해 최소 91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당 청년조직 주관 하 개최된 캠프에는 14~25세 사이의 청소년 600명이 참여 중이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충격을 피해 500m 떨어진 육지로 헤엄쳤다.<sup>17)</sup> 이들은 순수한 백인유럽문화를 만들고 이민자들 때문에 더러워진 유럽을 구하기 위해 테러를 가했다고 진술했다. CNN은 테러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르웨이 총기난사 테러의 특징은 첫째, 테러범이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 등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닌 노르웨이 자국민이었다는 것이다. 테러범은 평소 노르웨이의 다문화 이민정책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우익적인 정치 시각과 반 이슬람 성향을 가진 입장에서 점점 다문화 되어가는 노르웨이 문화에 격분하여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테러범은 컴퓨터 게임을 즐겼으며, 인터넷에 글과 동영상을 탑재하는 것과 폭력게임을 좋아 했다. 또한 달아나는 민간인을 조준 사격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희생자를 잔인하게 확인 사살하는 등 게임 속의 장면과 유사한 테러를 행했을 가능성이 높다.<sup>18)</sup> 셋째, 노르웨이 총기난사 테러범의 가정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등 애정이 결핍되면서 성장하였다.

17) 오세연,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테러에 대비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7권, 제1호, 2012, 145쪽.

18) 새전북신문 모바일, “노르웨이 테러 사건의 진실,” 2011. 8. 1.; <http://m.sjbnews.com/news/articleView.html?dxno=374117>(2017. 8. 10. 검색).

#### 4) 미국 마라톤 테러

2013년 4월 15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 결승선에서 2차례 폭발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80명 이상이 부상당하여 테러 공포에 휩싸였다. 2차례의 폭발은 오후 2시 50분경 보일스턴가 결승선에서 12~16초 정도의 간격을 두고 폭발하였으며, 두 폭발 지점은 서로 170m정도 떨어져 있었다. 이날 폭발로 8세 소년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숨졌고 2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는 러시아 체첸공화국에서 온 이민 가정출신 타메를란·조하르차르나예프 형제의 단독 범행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범인 검거과정에서 형 타메를란은 총격전 중 사망하였고, 동생 조하르차르나예프는 검거 후 사형이 선고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외부 테러조직의 지원을 받지 않은 독자적 자생테러로 결론이 났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의 특징은 첫째, 급조폭발물(IED)을 활용한 테러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압력솥 IED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알카에다 및 무장 세력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압력솥 폭탄은 그 동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테러사건에 종종 이용되어 왔다. 압력솥 폭탄은 특히 네팔,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sup>19)</sup> 둘째, 보스턴 마라톤 테러의 용의로 지목된 차르나예프 형제가 체첸계 출신으로 성장기 대부분은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자국 내의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면서 외국인 그리고 다문화가정 구성원 간의 갈등과 문제로 인해 발생한 ‘외로운 늑대’ 형태로 볼 수 있다.<sup>20)</sup>

19) 정현석, “국내 자생테러의 가능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41쪽.

20) 송문환, “한국 내 자생테러 발생가능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47쪽.

## 2. 시사점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식별할 수 있는 시사점은, 테러의 주범들은 국제테러집단이나 외국인이 아닌 자국에서 태어나 자라거나 이민을 통해 그 나라의 국민이 자국민에 대해 테러를 자행했다는 점이다. 즉 외부로부터의 테러가 아닌 자생적으로 생겨난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다. 서방의 국가들이 대부분 외부의 테러조직에 의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테러 방지에만 치우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의 공조와 각국의 테러방지체제 구축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테러 방지는 수월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자생테러에 대한 노력은 더욱 요구될 것이다.

자생테러범들은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차별과 갈등, 멸시를 당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성장배경에서 가정의 해체로 인한 정신적 불안과 사회적 부적응, 국외로부터의 이민 후 사회적 융합 실패, 종교·이념적 차이와 갈등으로 인한 외톨이로의 전락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원리주의 세력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직접 테러조직에 가담하여 훈련과 지시를 받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들의 종교적 이념을 추종하면서 스스로 극단주의로 전락하여 테러를 자행하기도 한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이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력을 확대하고 이슬람 테러를 '성전'으로 미화하는 등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인터넷에 노출된 이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혁명은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테러에 있어서 양날의 칼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테러범은 단순

히 이슬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하여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에 가담한 국가들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테러를 자행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일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현재처럼 외부의 테러조직에 의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테러방지에만 치우친다면, 자생테러를 예방하거나, 테러발생시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대테러 국가기관, 특히 경찰은 자생테러 발생이 가능한 계층에 대한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생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획득함을 고려하여 사이버상 위협요소 제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 테러 조직과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IV. 경찰의 국내 자생테러 대응 방안

### 1. 소외계층 관심 및 지역사회 활동 강화

테러는 대체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낮고 시간과 장소, 주제, 방법, 대상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한번 발생되면 상당한 충격과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자생테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회적 약자, 외국인 거주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자제와 포용력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통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경제적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중심의 사고에서 물질중심의 사고로, 이타주의보다는 자기중심주의적인 사고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소외계층을 사회와 더욱 격리시켜 결국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소외계층들이 사회에 불만을 최소화하고 그들이 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은 지역사회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포함하여 테러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든 독자적 활동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특히 경찰은 테러에 대한 정보 수집과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주민들과 협력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밀착하는 경찰활동을 한다면 테러를 포함한 기타의 범죄와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sup>21)</sup>

## 2. 사이버상 테러 위해요소 제거 활동 강화

현대 사회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세계에 살고 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테러는 사이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인터넷은 생활의 편리함뿐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지만 자생테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경계해야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테러조직들은 인터넷을 전략·전술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이념을 전파하고 그들의 비합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정

21) 명도현, 테러 예방을 위한 경찰역량 강화방안, 한국안보융합학회보 5권 3호, 2017, 12쪽.

당화시키며 구체적인 테러자행 방법, 수단, 전술 등을 공유함으로써 테러전사들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인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접근성, 개인의 신분 노출을 피할 수 있는 보안성, 급속한 전파가 가능한 확산성 등 테러전사를 양성하려는 테러조직과 잠재적인 자생테러리스트들에게 매우 유용한 매체로서 활용한다.

테러를 조장하는 사이버상의 위해요소들은 처음부터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원천적인 차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게시되었다면 최단시간 내 찾아내어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대처는 정부 주도하에 경찰, 국정원, 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행하되, 민간 인터넷 업계와도 긴밀히 협조하는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3. 테러방지법 시행태세 보완

9·11 테러 이후 테러 차단 및 방지를 위해 미국은 통합 및 강화법(USA patriot Act)을 2001년 10월 26일에 제정하였으며, 영국도 테러방지 및 보안법(Anti-Terrorism Crime & Securty)을 제정하여 테러를 조장하는 내용과 테러조직의 선전물을 전파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sup>22)</sup>

우리나라도 2001년 11월에 국가정보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5년만인 2016년 6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 14071)을 제정하였지만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우려,

22) 오세연·윤경희, “국내 IS 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6, 110쪽.

국가정보원의 권한 확대 및 남용 우려, 새로운 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법체계만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법 제정이 지연되었고 지금까지도 찬반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현행 테러방지법은 대부분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대테러인권보호관, 전담조직 등 대테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정원의 정보수집활동 이외에 형사법적 규정은 몇 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테러와 관련된 정보 수집과 공유 그리고 각 부처 간 협조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특히 자생테러의 경우 테러징후 파악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담당해야 할 경찰의 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 지역단위 경찰력의 증강과 함께 대테러 전담부대인 경찰특공대의 증원도 필요하다. 대테러 부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 장비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테러 요원에 대한 수당 및 처우도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

#### 4. 국내 및 국제 유관기관 협력 증진

테러가 국제화되고 나아가 초국가성이 심화되어가는 추세에서 효율적으로 자생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및 국제 사회의 유관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제 테러조직은 어느 한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있으면서 인터넷 등을 통한 프로파간다로 테러전사를 육성하고 활용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특정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테러의 무대로 생각하고 있는바 각국 간 의심되거나 징후 포착 시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테러의 발생 요인을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기관, 행정집행기관, 경찰 등 대테러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중요하다. 테러 예방을 위한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공유를 통해 사전 징후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다. 테러 대응 기관들은 각각 수집된 정보들이 한곳으로 정확하게 종합되어 분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슬람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 서방국가의 대부분 자생테러는 이슬람극단주의자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IS가 한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을 고려한다면 이슬람 국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해 나가는 것과 같이 이슬람 국가로 하여금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방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슬람 국가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내어준다면 편향되고 극단적인 사고를 통한 테러 행위는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 V. 결 론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자살테러 이후에는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노르웨이 총기난사 테러, 미국 보스턴 마라톤 테러의 사례에서처럼 자생테러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도심을 강타하는 테러의 특징은 '외로운 늑대'가 아닌 할 일 없이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테

러를 자행하는 ‘길거리 개(Stray dog)’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개들처럼 정교한 방법이나 무기 없이 충동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어렵다. 비록 그 나라 국민이지만 소수자인 마이너리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사회의 차별, 멸시가 이들을 테러로 인도하는 것이다.<sup>23)</sup> 이러한 자생테러의 양상을 고려한다면 테러 발생 징후를 포착하여 적시에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비교적 테러의 안전지대로 여겨지고 있고, 자생테러의 발생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서방국가의 주요 자생테러 사례와 앞에서 살펴 본 자생테러 환경 분석 및 가능성에서 분석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자생테러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생테러 환경과 가능성을 분석해 보고, 테러 발생 시 경찰의 대응 방안을 연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생테러 발생 시 경찰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자생테러 환경을 분석하여 테러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해 보았다.

환경을 분석해 본 결과 1990년대부터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로 그 환경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태이다. 특히, IS와 연계 가능한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는 2018년 6월 현재 약 33만 명이 체류하고 있어 그들에 의한 범죄 및 테러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 등의 확대로 인해 한국내의 자생테러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테러에 대비해서, 2016년 6월 테러 방지법을 제정하여

23) 이만중, “테러와 국가안보,” 국방일보, 2017. 8. 17., 9쪽

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의 테러 대비 방향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테러조직 중심으로 되어 있어 최근 세계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자생테러에 대한 예방 및 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구에서 기 발생한 자생테러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자생테러에 대한 경찰의 대비방안을 소외계층의 관심 및 지역 사회활동 강화, 사이버상 테러 위해요소 제거 및 활동 강화, 「테러방지법」 시행 태세 보완, 국내 및 국제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테러 안전 국가라는 인식과 자생테러는 발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료 수집 및 활용의 한계로 인해 연구에 다소 제한이 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시 우리나라의 자생테러 환경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 자생테러의 외국사례를 참고로 하여 예방 및 대응방안을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테러는 자신의 의지를 폭력적 행위를 통해 상대에게 관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구상 어느 곳이든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생테러는 자국민이 자국민에 대해 자행함으로써 그 충격은 더욱 크고 국민 간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서로 관용과 포용으로 사회적 약자로 하여금 차별과 학대를 통해 자생 테러리스트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 : 2018. 8. 10, 심사개시 : 2018. 8. 17 게재확정 : 2018. 9. 12〉

## 참 고 문 헌

### I. 국내문헌

#### 1. 논문

- 명도현, “테러 예방을 위한 경찰역량 강화방안”, 한국안보융합학회보 5권 3호, 2017.
- 박철현, “국내 자생테러 발생가능성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및 대책”,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0.
- 송문환, “한국 내 자생테러 발생가능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신승균, “한국의 철도테러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1호, 2002.
- 신용욱, “한국형 자생적 테러에 대한 전문가 인식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오세연,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테러에 대비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7권, 제1호, 2012.
- 오세연·윤경희, “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6.
- 임헌준, “한국 철도의 테러 정책 발전 방향”,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현석, “국내 자생테러의 가능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 홍순남, “3·11마드ريد 테러와 7·7런던테러 비교분석”, 경찰청, 대테러 논총, 제3집, 2000.

## 2. 기 타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9589&kind=1>(2018. 9. 4. 검색).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search.nhn?query=%EC%9D%B4%EC%8A%AC%EB%9E%8C+%EA%B5%AD%EA%B0%80&searchType=&dicType=&subject=\(2018. 9. 4. 검색\).](https://terms.naver.com/search.nhn?query=%EC%9D%B4%EC%8A%AC%EB%9E%8C+%EA%B5%AD%EA%B0%80&searchType=&dicType=&subject=(2018. 9. 4. 검색).)

기독교 타임즈 모바일, “급증하는 국내 이슬람 사원과 무슬림”,

<https://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56>(2018. 9. 4. 검색).

동아닷컴,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 3명 징역 4만년에 처한다.”:

<http://news.dinga.com/3/all/20071101/8506936/1>(2017.8.9.검색).

새전북신문 모바일, “노르웨이 테러 사건의 진실”, 2011. 8. 1.:

<http://m.sjbnews.com/news/articleView.html?dxno=374117>  
(2017. 8. 10. 검색).

이만종, “테러와 국가안보”, 국방일보, 2017. 8. 17.

출입국 이민국 통계월보,

<http://m.news.ne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832296>( 2018. 8. 9. 검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2018. 9. 4. 검색).

< ABSTRACT >

## A Study on Countermeasures by Police to Autogenous Terror in Korea

Yang, Cheol-Ho

Autogenous terrors, which is globally occurring in recent years, is emerging as a big social problem in the country and is expanding to neighboring countries. That the Autogenous terrors, which have occurred since 9.11 terror, are committed by people who have been born and raised in their own countries, gives a shock.

Analyzing the environment of Autogenous terror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likelihood of terror. Then, the paper looks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terror by analyzing the cases occurring globally and presents the countermeasures by the police, the first to be involved in the terrorist attacks.

The rapid increase in the population capable of terror and Muslims, and the expansion of cyberspace are analyzed to be reasons of Autogenous terror in Korea. Analyzing recent cases of terror occurred in Western countries: Madrid train terror, London terror, and Boston Marathon, this paper provides the lessons and implication. The possible countermeasures are to be increase in attention to the underprivileged, reinforcement of police activities in close contact with the community, removal of cyber terror elements, reinforcement on intelligence activities, compensation for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 and promotion of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related organizations.

◆ Key Words : Autogenous Terror, International Terror Cases, Countermeasure to Autogenous Terror, IS